

##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연구\*

이혜원\*\*

이 연구는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facts on aging*)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국가별로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 462명(한국 212명, 일본 250명)을 대상으로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3가지 변수집단(개인특성·노화인지관련·직무수행관련 요인)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15.1점(63.0%)으로서 일본 사회복지사의 16.2점(67.6%)보다 낮으며, 한국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2.2점(44.8%)으로서 일본 사회복지사의 3.2점(63.4%)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의 국가별 차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 대한 한·일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국가, 노화사실 인지정도,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비교

\* 이 연구는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V00901).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하면, 한국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노화사실 인지정도, 연령, 자격증 등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일본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활동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서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화에 대한 비과학적 인식과 노인의 능력에 대한 편견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련 전문가에게까지 만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은 고집이 세고 옛 것만을 주장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며,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고 간주한다. 서구 사회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편견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간호사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보고되고 있다(Rankin · Burggraff, 1983; Hillman · Stricker, 1994; 송미순, 1984; 오진주 · 신은영, 1998 등). 특히 Frenay · Pierce(1971)는 75세 우울증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가 노인의 행동 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오진주 · 신은영(1998)의 연구 결과, 노년기의 성적 욕구를 불필요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노인을 비도덕적 노인으로 간주함으로써 노인에 대하여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부정적 태도는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상담이나 다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노화에 대한 편견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태도는 노인 자신을 비하하고 무능력한 자로 낙인찍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갖게 함은 물론 노인과 노인복지관련 전문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노인복지서비스의 목표는 노화라는 조건에서도 노인에게 남아있는 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강화함으로써 자립을 도모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때에 노인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이 서비스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는 노화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여야 하며 이들이 인식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요하다. 이들 가운데 특히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인 노인의 욕구를 사정하여 평

가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노인복지관련 인력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노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그 결정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에 기초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해원(1999) 외에 발견할 수 없으며, 더구나 장기요양보호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sup>1)</sup>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시설에서 입소노인의 일상생활을 24시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와 유사한 유교적 전통을 갖고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제도를 확충시킨 일본의 상황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sup>2)</sup> 이로써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를 파악하며,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비교함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연구문제 1-1: 노화사실에 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정도는 어떠한가?

- 1) 이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전체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이해원(1999)의 후속 연구로서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노인요양시설(특별양호노인홈) 사회복지사 전체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따라서 제2장의 선행연구 고찰 등에 있어서 중복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해원(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 2) 예를 들어, 일본 특별양호노인홈의 종사자 배치 기준은 최소 22명(입소노인 50명 기준; 시설장 1명, 생활상담원 1명 이상, 간호사 2명 이상, 개호복지사 15명 이상, 영양사 1명 이상, 기능훈련지도원 1명 이상, 사례관리자 1명 이상)이며,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인건비 지원 기준(2001년도)은 12명이다. 특히 일본의 개호보험 실시(2000년 4월) 이후 전문교육을 받은 종사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연구문제 1-2: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문제 2-1: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가?
- 연구문제 2-2: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 연구문제 3-1: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2: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연구문제 4: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노인복지업무 지속희망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 선행연구의 고찰

### 1)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노화란 나이를 먹는다는 의미로서 인간 유기체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의 과정으로 정의된다(Birren, 1959). 따라서 노화는 단면적인 현상이 아니라 노인의 성격, 질병, 생활력 등 개인적 요인과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망, 지역사회 특성 등 환경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면적인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개인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개인 내부에 있어서도 각각의 측면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노화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정도가 곧 노화사실 인지정도이며, 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노인 자신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에게 중요하다. 이는 노화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와 같은 지식과 이해에 바탕을 두고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만이 노인과 가족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노화에 관한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하여, Tuckman·Lorge(1953)가 최초로 13개 노화영역의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으나, 문항 수가 너무 많고 노화사실과 태도를 혼동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Palmore(1977)는 25개 문항의 노화사실 인지척도(Facts on Aging Quiz)를 개발

하여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노화영역의 인지정도를 정답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Miller·Dodder(1980)는 응답 선택에 있어서 “모르겠다”를 추가하여 FAQ 수정판을 구성하였다. 국내에서는 윤진·조석미(1982)가 최초로 FAQ척도(1977)를 우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대학생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정답률 52.8%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한 척도로써 대학병원 간호사와 일반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송미순(1984)과 손주은(1989)의 연구에서는 각각 65.0%와 58.8%로 나타났다. 또한 이 척도를 최근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회복지사와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원(1999)과 이해원(2000)의 연구에서는 평균 정답률이 각각 65.3%와 59.1%로 나타났다.

한편 태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학습된 신념을 의미하며, 태도를 이루는 신념은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 그리고 행동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Ajzen·Fishbein, 1980). 따라서 한 사람(지각자)의 다른 사람(대상자)에 대한 태도는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대상자에 관해 지각한 정보(인지)와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정서), 그리고 지각자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영향을 받고 대상자에게 반응(행동)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노인에 대한 태도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측정 문제에 집중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태도를 예측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노인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최초로 측정한 Tuckman·Lorge(1953)의 연구를 기초로 Kogan(1961)은 노인태도척도(The Attitude Toward Old People Scal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를 사용한 Spence(1968), Garfinkel(1975), Calnan·Hanron(1970), 김은일(1982), 김효신(1994)의 연구 결과, 의사, 간호사, 의과·간호학과 대학생의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척도의 단일차원 접근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Kilty·Feld(1976)가 요인분석을 통해 4가지 요인별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전문 간호사를 측정한 Benson(1982)의 결과는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간호사를 측정한 Rankin·Burggraff(1983)의 결과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前田大作(1983)는 3세대간의 심리적 역동관계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3가지 요인별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을 측정한 保坂久美子 外(1988)는 부정적 태도를, 초등학교

과 중학생을 측정한 中野いく子(1991)와 冷水豊外(1993)는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국내에서 Osgood·Suci·Tannenbaum(1957)의 의미분석척도를 재구성하여 간호사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측정한 송미순(1984)과 서병숙·김수현(1999)은 부정적 태도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척도는 노인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형용사의 의미를 3가지 요인(평가인자, 활동인자, 능력인자) 별로 분석하여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노화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대한 태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제한되어 있다. 이에 윤진(1988)은 요인분석을 통해 5가지 요인(자녀-가족관계, 행동특성, 능력감퇴, 사회적 유리경향, 일상생활 관련소외) 별 노인태도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간호학과 대학생을 측정한 유지수 외(1991)는 부정적 태도를 보고하였으나, 이용시설 사회복지사를 측정한 이해원(1999)은 긍정적 태도를 보고하였다.

## 2)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내외 선행연구는 노인복지관련 인력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령, 성별, 노인과 동거경험, 학력,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 노화사실 인지정도, 근무경력, 근무시설 소재지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서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우선 Campbell(1971)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연령이 많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였던 반면에, 송미순(1984)과 이해원(2000)은 연령이 적을수록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Gillis(1973)는 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해원(2000)에서는 여성 가정봉사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남성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Campbell(1971), 최경옥(1976), 김매자(1978), 송미순(1984)은 노인과 동거경험에 따른 간호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해원(1999)과 이해원(2000)의 연구에서는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가정봉사원이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일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中野いく子(1991)와 冷水豊外(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Calnan·Hanron(1970), Campbell(1971), 최경옥(1976), 이해원(2000)의 연구에서는 간호사와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송미순(1984)에서는 대학병원 간호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학력, 노인

간호에 대한 교육이수여부는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혜원(1999)에서도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노인대상 실습이수나 노인복지 과목이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화사실 인지점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대상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태도가 경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이혜원(2000)에서는 노인대상 자원봉사를 경험하지 않은 가정봉사원의 태도가 경험한 경우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 변수와 관련하여 Gillis(1973)는 근무경력이 2년 정도인 양로시설 간호사가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다가 이후 점차 부정적 태도로 바뀌나, 근무경력 6년 이상이 되면 다시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 간호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김매자(1978)와 송미순(1984)의 결과도 Gillis(1973)와 일치하였으나, 이혜원(1999)과 이혜원(2000)에서는 사회복지사나 가정봉사원의 근무경력에 따른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가정봉사원이 대도시 지역의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국가 요인과 관련하여 고찰하면, 노인에 대한 태도는 그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지향하는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유교적 전통을 공유하는 문화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질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섭중·박병현(1995)은 양국의 복지의식의 차이점을 검증하였다. 즉 노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33.9%, 일본 16.5%로 나타난 반면에, 노부모 부양이 어려울 경우 시설에 보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12.8%, 일본 24.7%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의 자원봉사경험도 한국(54.4%)이 일본(26.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변희순·김현주(1992)의 조사 결과, 국가는 개인의 가정생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울 시민 94.3%, 후쿠오카 시민 63.8%로 나타났다.

### 3. 연구방법

#### 1) 연구 자료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국의 노인복지입소시설 가운데 치료기능이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전체 212명(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내부자료, 1999), 일본 전국의 특별양호노인홈(한국의 노인요양·전문요양시설에 해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일본사회복지사회 내부자료, 1999) 250명을 대상으로 2000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 기입식 설문지 462부를 우편으로 배부하여 회수된 총 313부(회수율 67.7%)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한 300부(한국 153부, 일본 147부)를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 변수

##### (1)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lty와 Feld(1976)의 노인태도척도와 국내에서 재구성한 윤진(1988)의 척도를 참조하였으며, 이들의 내용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신뢰도를 보완·검증한 이해원(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4가지 하위영역(자녀-가족관계, 행동특성, 능력감퇴경향, 일상생활관련 소외경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Eigen value 1.0 이상인 하위 척도들의 요인부하량은 <표 1>과 같으며, 전체 요인의 63.06%를 설명하고 있다. 이때에 능력감퇴경향에 속한 3개 문항의 구성이 적절하지 않아 탈락시켰다.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이었고,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자녀-가족관계 .75, 행동특성 .79, 능력감퇴경향 .74, 일상생활관련 소외경향 .71이었다.



〈표 1〉 노인에 대한 태도 척도의 구성 타당도 및 신뢰도(Cronbach's  $\alpha$ )

하위영역	척도 문항별 내용	요인부하량	신뢰도
자녀-가족 관계 (태도1)	*태도1-1. 자녀와 동거할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조화되기 어렵다.	.409	.75
	태도1-2. 집안 일에 대해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774	
	태도1-3. 자녀의 부부 싸움이나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가 된다.	.474	
	태도1-4. 노인은 어린아이를 좋아한다.	.779	
	태도1-5. 노인 자신에 대해서보다는 자녀 걱정을 더 많이 한다.	.827	
	태도1-6.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집안은 화목하다.	.595	
행동특성 (태도2)	*태도2-1. 노인은 젊은 세대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392	.79
	*태도2-1. 사람은 늙어갈수록 어린아이와 같아진다.	.654	
	*태도2-3. 노인은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한다.	.695	
	*태도2-4. 새로운 물건보다 옛날부터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려고 한다.	.564	
	*태도2-5. 노인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거기에 집착한다.	.660	
	*태도2-6. 대부분의 노인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다.	.548	
능력감퇴 경향 (태도3)	*태도3-1. 노년기는 인생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이다.	.651	.74
	*태도3-2. 늙어갈수록 능력이 떨어져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690	
	*태도3-3. 노인들은 대체로 성생활을 할 능력이 없다.	.712	
일상생활 관련 소외경향 (태도4)	*태도4-1. 노인이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450	.71
	*태도4-2. 노인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625	
	*태도4-3. 정년 퇴직과 더불어 적극적 사회활동은 끝나게 된다.	.672	
	*태도4-4. 노인은 외롭다.	.619	
	*태도4-5. 노인은 어쩔 수 없이 집안에서 하루를 보낸다.	.801	
	태도4-6. 노인은 일상생활을 즐기며 살고 있다.		
태도전체	전체 요인(태도전체 21문항)의 설명력 63.06%		.88

\* 표시된 문항은 역문항이다.

(2) 독립변수

이 연구는 독립변수를 크게 3가지 변수집단(사회복지사의 개인특성·노화인지관련특성·직무관련특성)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으며, 각 독립변수의 정의는 〈표 2〉와 같다. 이들 가운데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Palmore(1977)의 척도를 국내에서 재구성한 윤진·조석미(1982)의 척도를 바탕으로 노인인구의 증가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인지영역에서 4가지 문항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이혜원(1999)의 척도를 사용

〈표 2〉 독립변수의 정의

개인특성	1. 성별(여성=1, 남성=0) 2. 연령(만) 3. 결혼상태(기혼=1, 미혼=0) 4. 노인과 동거경험(동거=1, 비동거=0) 5. 학력(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1, 전문대학 졸업 이하=0)
노화사실 인지정도 관련특성	6. 노인복지과목 이수(이수=1, 미이수=0) 7.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봉사=1, 비봉사=0) 8. 노인복지실습 이수(이수=1, 미이수=0) 9. 노화사실 인지정도(노화인지척도 점수의 총합)
직무관련특성	10.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급(1급=1, 2급 이하=0) 11. 활동기간(개월 수) 12. 근무시설 소재지(대도시=1, 기타=0) 13. 국가(한국=1, 일본=0)

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서 노화사실의 신체적 인지영역(9개 문항)과 심리적 인지영역(9개 문항), 그리고 사회적 인지영역(6개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응답자가 표시한 전체 응답 가운데 정답의 경우는 1, 정답이 아닌 경우("모르겠다" 포함)는 0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측정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사실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의 내용은 국내와 일본의 선행연구에서 과학적 사실로서 밝혀진 노화에 관하여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이 확실하며, 손주온(1989), 유지수 외(1991), 김효신(1994), 이해원(1999), 이해원(2000) 등 선행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 3) 분석방법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 및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고, 측정된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국가별 차이와 변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ANOVA, 상관관계(*correlation*)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때에 variation이 거의 없거나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변수들은 제외하였다. 끝으로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복지업무 지속희망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SPSS 10.0 for Windows를 사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 1) 한국과 일본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기술적 분석

전체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 74.5%, 남성 25.5%로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여성 84.3%, 남성 15.7%이며, 일본은 여성 64.1%, 남성 35.9%로서 일본 남성의 비율이 한국의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은 평균 34.1세(한국 31.7세, 일본 36.7세)로서 전체의 55.3%가 30대 이상이며, 49.7%가 기혼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63.0%(한국 75.8%, 일본 50.0%)가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고, 62.3%(한국 70.9%, 일본 55.6%)는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사회복지사가 일본보다 더 높은 비율의 노인 동거 및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을 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신섭중·박병현(1995)의 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노인과의 동거경험 비율의 차이는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와의 동거 비율의 국가간 차이를 반영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학력은 전체의 59.0%(한국 49.6%, 일본 69.9%)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며, 23.3%(한국 37.1%, 일본 9.6%)가 전문대학 졸업으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61.3%(한국 47.1%, 일본 76.7%)는 사회복지사 1급, 31.7%(한국 52.9%, 일본 23.3%)는 2급 이하(일본의 경우,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였으나 국가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의 77.0%(한국 82.1%, 일본 74.8%)가 노인복지과목을 이수하였으며, 61.0%(한국 55.3%, 일본 62.2%)는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	
국가	한국	153	51.0				
	일본	147	49.5				
성별	여성	222	74.5				
	남성	76	25.5				
연령	20대	134	44.7	34.10		10.53	
	30대	73	24.3	한국	일본	한국	일본
	40대	54	18.0				
	50대 이상	35	11.7				
					31.68	36.65	10.30
결혼상태	기혼	149	49.7				
	미혼	139	46.3				
	기타	12	4.0				
노인과 동거경험	동거경험 있음	189	63.0				
	동거경험 없음	110	36.7				
	무응답	1	0.3				
노인 대상 자원봉사경험	봉사경험 있음	187	62.3				
	봉사경험 없음	108	36.0				
	무응답	5	1.7				
학력	대학원 졸업	22	7.3				
	4년제 대학 졸업	155	51.7				
	전문대학 졸업	70	23.3				
	고등학교 졸업	50	16.7				
	무응답	3	1.0				
노인복지과목 이수	이수하였음	231	77.0				
	이수하지 않았음	63	21.0				
	무응답	6	2.0				
노인복지실습 이수	실습하였음	183	61.0				
	실습하지 않았음	111	37.0				
	무응답	6	2.0				
노인복지업무 지속희망 여부	희망함	197	65.7				
	고려함	91	30.3				
	희망하지 않음	3	1.0				
	무응답	9	3.0				
활동기간	2년 이하	91	30.3	6.08		5.67	
	3년~5년	83	27.7	한국	일본	한국	일본
	6년~10년	69	23.0				
	11년 이상	49	16.3				
	무응답	8	2.7	5.00	7.16	5.22	5.91
근무시설 소재지	대도시	123	41.6				
	중소도시	124	41.9				
	농어촌지역	46	16.5				
자격증 등급	1급	184	61.3				
	2급	95	31.7				
	3급	20	6.6				
	무응답	1	0.3				

한편 이들의 활동기간은 평균 6.1년(한국 5.0년, 일본 7.2년)이며,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소재지는 대도시 41.6%(한국 27.6%, 일본 56.3%),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58.4%(한국 72.4%, 일본 58.4%)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는 한국의 경우보다 활동기간이 평균 2.2년 더 많으며, 대도시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이직률과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지역별 분포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5.7%(한국 81.2%, 일본 53.5%)는 노인복지업무를 앞으로 지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34.3%(한국 18.8%, 일본 46.5%)는 고려 또는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사회복지사가 한국의 경우보다 학력(국가시험 합격 경험)이 더 높고 근무기간이 더 많아 처우 조건이 더 나은 다른 업무를 지향할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2)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에 관한 기술적 분석 및 국가별 차이검증

전체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표 4>와 같이 전체 24점을 기준으로 평균 15.7점(65.3%)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동일한 척도로써 국내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측정된 이해원(1999)의 결과와 일치한다. 노화사실 인지 하위영역(신체·심리·사회)별 평균 정답률을 비교하면, 각각 72.1%, 65.5%, 58.2%로서 신체적 인지영역의 평균 정답률이 가장 높고, 사회적 인지영역의 평균 정답률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국가별 노화사실 인지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일본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평균 16.2점(67.6%)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사의 15.1점(6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를 노화사실 인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인지정도의 차이는  $p < .05$  유의수준에서, 사회적 인지정도의 차이는  $p < .01$  유의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일본 사회복지사의 경우보다 7.0%(평균 정답률)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사회복지사가 한국 사회복지사보다 연령과 학력, 그리고 노인대상 사회복지시설습 이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활동기간이 더 많은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노화사실 인지 문항별 사회복지사의 평균 정답률

하위영역	척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정답률(%)	하위영역	척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정답률(%)
신체적 인지영역 (인지1)	인지1-1	.77	.42	77.4	사회적 인지영역 (인지3)	인지3-1	.17	.38	16.9
	인지1-2	.50	.50	50.0		인지3-2	.52	.50	51.8
	인지1-3	.80	.40	80.2		인지3-3	.79	.41	78.7
	인지1-4	.91	.29	90.8		인지3-4	.85	.35	85.4
	인지1-5	.94	.23	94.3		인지3-5	.96	.20	95.9
	인지1-6	.57	.50	57.4		인지3-6	.61	.49	61.0
	인지1-7	.79	.41	78.9		인지3-7	.76	.43	75.8
	인지1-8	.89	.31	89.1		인지3-8	.42	.50	42.5
	인지1-9	.80	.40	79.9		인지3-9	.91	.29	90.7
인지1 전체	6.49	1.43	72.1	인지3 전체	5.24	1.81	58.2		
심리적 인지영역 (인지2)	인지2-1	.74	.44	73.6	인지전체(인지1+인지2+인지3=24문항) 평균점수: 15.66점(표준편차 3.31), 평균정답률: 65.3%				
	인지2-2	.88	.32	88.5					
	인지2-3	.70	.46	70.2					
	인지2-4	.47	.50	47.4					
	인지2-5	.89	.31	89.3					
	인지2-6	.82	.39	81.9					
인지2 전체	3.93	1.27	65.5						

〈표 5〉 사회복지사의 국가별 노화사실 인지정도의 차이

종속변수 (노화사실 인지정도)	사회복지사의 국적별 평균 점수·정답률						t
	한국 사회복지사			일본 사회복지사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정답률(%)	평균	표준 편차	평균 정답률(%)	
인지1: 신체적 인지영역 (9점 만점)	6.33	1.36	70.3	6.65	1.49	73.9	-1.983*
인지2: 심리적 인지영역 (6점 만점)	3.86	1.08	64.3	4.01	1.45	66.8	-1.065
인지3: 사회적 인지영역 (9점 만점)	4.93	1.44	54.8	5.56	2.08	61.8	-3.032**
인지 전체: 인지1~3 (24점 만점)	15.11	2.53	63.0	16.2 2	3.89	67.6	-2.923***

\*p<.05, \*\*p<.01, \*\*\*p<.001

### 3)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기술적 분석 및 국가별 차이 검증

전체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표 6>과 같이 5점을 기준으로 평균 2.69점(53.8%)으로서 약간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이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이혜원(1999)의 결과(3.10점, 62.0%)와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복지사의 근무 시설 유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입소시설에서 24시간 노인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조건이 이용시설에서 낮 동안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능력감퇴경향 3.02점, 일상생활관련 소외경향 2.92점, 자녀·가족관계 2.76점, 행동특성 2.1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능력감퇴경향과 일상생활관련 소외경향, 그리고 자녀·가족관계와 관련하여 비교적 노인을 이해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노인의 행동특성(특히 노인이 옛날부터 쓰던 물건을 계속 쓰려는

<표 6>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

하위영역	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하위영역	척도 문항	평균	표준편차
자녀-가족 관계 (태도1)	*태도1-1	2.68	1.14	능력감퇴경향 (태도3)	*태도3-1	3.14	1.31
	태도1-2	2.97	1.25		*태도3-2	3.28	1.16
	태도1-3	2.88	1.00		*태도3-3	3.19	1.10
	태도1-4	2.69	1.51				
	태도1-5	2.52	1.57				
	태도1-6	2.81	.86				
	태도1 전체	2.76	.84	태도3 전체	3.02	.96	
행동특성 (태도2)	*태도2-1	2.55	.96	일상생활관련 소외경향 (태도4)	*태도4-1	1.94	.80
	*태도2-2	2.50	1.49		*태도4-2	3.29	1.17
	*태도2-3	1.92	1.01		*태도4-3	3.65	1.35
	*태도2-4	1.83	.86		*태도4-4	2.57	1.24
	*태도2-5	1.87	.85		*태도4-5	3.04	1.20
	*태도2-6	2.18	.91		태도4-6	3.03	.85
	태도2 전체	2.14	.72	태도4 전체	2.92	.71	
태도전체 (21문항)의 평균 점수: 2.69 (표준편차: .61)							

경향과 노인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거나 집착하는 경향, 그리고 노인 자신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국가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일본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3.17점(63.4%)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사의 2.24점(44.8%)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p <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 사회복지사가 한국 사회복지사보다 연령·학력·노인대상 실습 이수 비율·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더 높고, 활동기간이 더 많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조건이 더 좋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sup>3)</sup>

<표 7> 사회복지사의 국가별 노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

종속변수 (노인에 대한 태도: 5점 척도)	국적별 평균				t
	한국사회복지사		일본사회복지사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태도1: 자녀-가족관계	2.06	.41	3.49	.48	-27.786***
태도2: 행동특성	1.69	.48	2.61	.63	-14.181***
태도3: 능력감퇴경향	2.99	.98	3.43	.89	-4.082***
태도4: 일상생활관련 소외경향	2.58	.67	3.27	.57	-9.489***
태도전체: 태도1~4	2.24	.40	3.17	.41	-19.985***

\* $p < .05$ , \*\* $p < .01$ , \*\*\* $p < .001$

3) 일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경우, 1999년 현재, 대졸 초임 기본 급여는 18만 7천 엔(약 187만 원, 2001년 현재 일반 직장의 대졸 초임 평균은 19만 7백 엔)이며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은 약 1만 엔이다. 근무 시간에 있어서 낮 근무(8:30~17:00), 야간 근무(17:00~다음 날 9:00), 아침 근무(7:00~15:30), 저녁 근무(10:00~18:30)를 각각 주 1회 정도 교대로 실시하나, 야간 근무의 경우는 월 4~6회 정도로 제한하고 야근 다음 날은 근무하지 않으며 야근수당이나 특별수당을 받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시설에서 2교대제를 실시하며, 일부 시설에서 3교대제를 실시한다. 휴일은 요일과 상관없이 교대로 주어진다(일본사회복지사회, 1999). 한편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경우, 2000년 현재, 월보수 국고보조 기준이 1호봉 101만 6천 원이며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은 5만 원(서울시: 16만 8천 원)이다. 근무 시간은 2001년 4월부터 2교대제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생활지도원은 1일 평균 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전체 종사자의 약 50%가 상주한다(K요양원 내부자료, 2001).



#### 4)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간의 상관관계 검증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변인인 인지신체·심리와 태도가족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말해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하위변인인 인지심리와 태도행동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는 점이다.

#### 5)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회귀분석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들 예측변인들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에 <표 2>의 13개 독립변수들 가운데 variation이 거의 없는 변수들(성별과 노인복지과목 이수)을 제외하였다. <표 9>는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노인에 대한 태도전체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총 11개의 독립변수들 가운데 국가( $p=.000$ )와 노화사실 인지정도( $p=.001$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태도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61.3%이다. 즉 일본 사회복지사가 한국 사회복지사보다, 그리고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노화사실 인지정도의 영향력은 Calnan·Hanron(1970), Campbell(1971), 최경옥(1976), 이해원(1999), 이해원(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봉사원 등 노인복지관련 인력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노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검증하였다.

하위영역별 결정요인을 분석하면, 태도1에 대하여 국가( $p=.000$ )와 노인과의 동거경험( $p=.042$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태도1에 대한 설명력은 73.4%로서 가장 높다. 따라서 일본 사회복지사의 경우와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의 자녀-가족관계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태도 2에 대하여는 국가(p=.000), 노화사실 인지정도(p=.037), 노인대상 자원봉사 경험(p=.098)의 순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44.9%이다. 즉 일본 사회복지사의 경우가,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의 행동특성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

〈표 8〉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간의 상관관계(Pearson's r)

	인지심리	인지사회	인지신체	인지전체
태도가족	.065	.156**	.093	.150**
태도행동	.304***	.124*	.160**	.254***
태도능력	.280***	.150**	.192**	.273***
태도사회	.222***	.152**	.114*	.218***
태도전체	.264***	.186**	.171**	.277***

\*p < .05, \*\*p < .01, \*\*\*p < .001

〈표 9〉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독립변수	태도1		태도2		태도3		태도4		태도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연령	-.056	-1.225	-.052	-.797	-.038	-.468	-.037	-.481	-.062	-1.113
결혼상태	.015	.369	.057	.984	.098	1.369	.040	.608	.058	1.203
동거경험	.090*	2.047	.004	.082	.041	.665	.055	.966	.057	1.368
학력	-.073	-1.682	.098	1.564	.046	.590	.025	.349	.024	.462
봉사경험	.000	-.002	.085#	1.658	-.067	-1.049	-.084	-1.408	-.016	-.360
실습이수	.002	.055	-.056	-1.103	.018	.292	-.008	-.145	-.017	-.391
노화인지 (전체)	.017	.494	.102*	2.109	.245***	4.076	.126*	2.254	.137**	3.385
활동기간	.021	.505	.026	.424	.035	.463	.049	.697	.042	.820
소재지	-.019	-.540	-.004	-.082	-.018	-.296	-.061	-1.057	-.033	-.781
국가	-.897***	-22.970	-.630***	-11.204	-.170*	-2.424	-.457***	-7.045	-.752***	-15.960
자격등급	.004	.088	.020	.315	.090	1.116	.053	.714	.045	.835
R <sup>2</sup>	.734		.449		.144		.266		.613	
F	66.120***		19.511***		4.035***		8.654***		37.797***	

#p<.1, \*p<.05, \*\*p<.01, \*\*\*p<.001

도를 나타냈다. 그리고 태도 3에 대하여 노화사실 인지정도( $p=.000$ )와 국가( $p=.016$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설명력은 14.4%이다. 또한 태도 4에 대해서도 국가( $p=.000$ )와 노화사실 인지정도( $p=.000$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설명력은 26.6%이다. 따라서 일본 사회복지사의 경우가,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의 능력감퇴 경향과 일상생활관련 소외경향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 결과들 가운데 태도전체와 태도 1·태도 2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차이는 태도의 하위영역별 특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노인의 자녀-가족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족성원으로서의 노인과 동거경험이 다른 하위영역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행동특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노인대상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의 행동을 관찰하였던 경험이 다른 하위영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국가별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표 9>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았던 독립변수인 국가 변수를 제거하고 10개의 독립변수를 투입한 결과, <표 10>과 같이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즉 자격증 등급( $p=.000$ ), 노화사실 인지정도( $p=.000$ ), 근무시설 소재지( $p=.001$ ), 노인과 동거경험( $p=.003$ )의 순서로 전체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나타났다. 이때에 독립변수들 가운데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표 8>에서 노인에 대한 태도전체와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심리적 인지정도(인지 2)를 투입하였다. 따라서 자격증이 1급(일본 국가시험 합격)인 경우가,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대도시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노인과 동거경험이 없는 경우가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참고로 일본 사회복지사가 한국 사회복지사보다 대도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율이 2배 이상 높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노인과 동거경험 영향력이 <표 9>의 태도 1과 <표 10>의 태도전체와 상반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노인과 동거경험 영향력이 노인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즉 노인의 자녀-가족관계만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반면에, 노인의 행동특성, 능력감퇴, 소외경향 등을 포함하여 노인을 전체적으로 이해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사회복지사보다 현저하게 긍

정적인 태도(〈표 7〉 참조)를 나타냈던 일본 사회복지사가 노인과의 동거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표 3〉 관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한국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전체의 결정요인으로는 노화사실 인지정도( $p=.001$ ), 연령( $p=.001$ ), 자격증 등급( $p=.006$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태도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19.9%이다. 즉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1급의 경우가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연령의 영향력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송미순(1984)과 가정봉사원을 대상으로 한 이해원(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등급별 노화사실 인지정도의 차이를 비교하면,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의 평균 정답률이 2급 이하의 경우보다 3.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그리고 〈표 8〉과 〈표 9〉에 제시된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표 10〉을 통해서도 검증되었다. 한편 일본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전체의 결정요인으로는 노화사

〈표 10〉 사회복지사의 국가별 노인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비교

독립변수	한국 사회복지사 (N=153명)		일본 사회복지사 (N=147명)		전체 사회복지사 (N=300명)	
	$\beta$	t	$\beta$	t	$\beta$	t
연령	-.280**	-3.362	.066	.805	.037	.673
결혼상태	.006	.061	.070	.855	.027	.488
노인과 동거경험	.076	.976	.073	.888	-.202**	-2.954
학력	.099	.871	-.008	-.098	.060	.825
노인대상 봉사경험	.045	.582	.012	.151	-.053	-.952
노인복지실습 이수	-.036	-.461	.093	1.126	.103	1.905
노화인지(심리)	.250**	3.385	.348***	4.263	.274***	5.062
활동기간	-.094	-1.075	.139#	1.720	.072	1.292
근무시설 소재지	-.100	-1.282	-.026	-.315	.229**	3.412
자격증 등급	.222**	2.462	.052	.630	.366***	5.309
R <sup>2</sup>	.199		.121		.217	
F	16.339***(.000)		18.173***(.000)		26.304***(.000)	

# $p<.1$ , \* $p<.05$ , \*\* $p<.01$ , \*\*\* $p<.001$

실 인지정도( $p=.001$ )와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 $p=.088$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태도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12.1%이다. 즉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이 오래될수록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Gillis(1973)와 송미순(198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은 근무기간이 6년 이상인 간호사가 노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일본 사회복지사(평균 7.2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반하여, 한국 사회복지사(평균 5.0년)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사회복지사의 대다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국의 사회복지사 1급에 해당)하였으므로 자격증 등급은 일본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인복지업무 지속희망 여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향후 노인복지업무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가 노인복지업무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낼 실제적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복지업무 지속희망 여부를 종속변수로,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하위 태도 1~4)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이,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복지업무 지속희망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즉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노인복지업무 지속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11〉 노인에 대한 태도가 노인복지업무 지속에 미치는 영향(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B	Wald	df	sig.	R	Exp(B)
태도전체 (태도 1~4)	.8140***	14.3527	1	.0002	.1837	2.2569
Constant	-2.9745	23.4458	1	.0000	-	-
Chi-square (sig.)	15.302 (.0001)					

\*\*\*p&lt;.001

## 5. 결론 및 실천적 함의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노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제3장에 제시한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 전체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평균 15.7점(65.3%)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분석하면, 일본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16.2점(67.6%)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사의 15.1점(63.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나타냈다( $p < .001$ ).

둘째, 한일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 전체의 노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 2.7점(53.8%)으로서 거의 중도로 나타났고,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3.2점(63.4%)으로서 한국 사회복지사의 2.2점(44.8%)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냈다( $p < .001$ ).

셋째, 한일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 전체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하위영역별 결정요인 포함)은 국가, 노화사실 인지정도, 노인과 동거경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의 순서로 나타났다. 즉 일본 사회복지사의 경우가, 노화사실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노인과 동거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리고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가 노인에 대하여 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특히 노화사실 인지정도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으로써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임을 검증하였으며, 노인과의 동거경험 및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은 재가복지봉사센터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측정한 이해원(199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국

가 변수를 제거한 회귀분석 결과, 한국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화사실 인지정도, 연령, 자격증 등급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에, 일본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경우는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한·일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이들의 노인복지업무 지속희망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측요인으로서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과 동거경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점,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던 노인대상 자원봉사경험의 영향력을 재 측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점, 선행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4가지 변수들(결혼상태, 학력, 과목이수,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을 재측정함으로써 결혼상태·학력·과목이수의 동일한 결과를 확인한 반면에 노인복지업무 담당기간은 일본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임을 발견한 점, 노인복지시설 유형별·국가별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점 등을 의의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별·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이용요금 부담정도에 따른 시설 유형별·1인당 담당 노인 수별·분담된 업무내용별 사회복지사의 태도를 비교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연구의 한계로 들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한국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사의 노화사실 인지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과 재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특히 <표 4>와 같이 한국 사회복지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난 사회적 노화사실 인지영역에 관한 교육 내용이 현행 대학 교육과정은 물론 취업 후 재교육과정에서 집중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 9>에 근거하여 노인과 살아본 경험이 없거나 노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경험하지 않은 사회복지학과 대학생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노인 체험, 노인복지시설 체험, 재가노인수발 체험, 노인과의 병원동행과 같은 자원봉사 등 노인과의 개인적인 체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습교육 또는 실습재교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로써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행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과정에 있어서, <표 10>에 근거하여, 연령이 많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2급 이하인 사회복지사를 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실무 중심의 심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험을 근거로 2~3교대제도, 다양한 근무형태, 기본급여 인상, 각종 수당 등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노인 복지업무 담당기간이 현재보다 6년 이상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복지사의 노인에 대한 태도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참고문헌·

- 김매자. 1978. “노인환자에 대한 간호학생과 졸업간호원들의 태도에 관한 조사.” 《중양의학》 제34권 2호, pp. 179~184.
- 김은일. 1982. “노인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태도조사 연구.” 《간호학회지》 제12권 1호, pp. 1~12.
- 김효신. 1994. “간호전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중양의학》 제59권 9호, pp. 717~725.
- 변화순·김현주. 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서병숙·김수현. 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제19권 2호, pp. 97~111.
- 손주은. 1989. “일 병원 임상간호사의 노화사실인지 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미순. 1984. “간호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제27권 7호, pp. 117~125.
- 신섭중·박병현. 1995. “한국, 일본, 미국의 복지의식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27호, pp. 193~197.
- 오진주·신은영. 1998. “노인의 성적 욕구에 대한 시설종사자들의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제18권 2호, pp. 97~109.
- 윤진·조석미. 1982.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의 구성연구.” 《한국노년학》 통권 제2호, pp. 5~15.
- \_\_\_\_\_. 1988. “노인과 노화과정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I).” 《한국노년학》 제7권 1호,



- pp. 63~73.
- 유지수 외. 1991. "일 대학의 노인간호학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간호학》 통권 제14호, pp. 11~30.
- 이혜원. 1999.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태도조사."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9호, pp. 266~289.
- \_\_\_\_\_. 2000. "가정봉사원의 노화사실 인지정도와 노인에 대한 태도: 급여유무별비교."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43호, pp. 358~384.
- 최경옥. 1976. "노인간호에 대한 간호원의 태도조사연구." 《간호학회지》 제6권 2호, pp. 1~9.
- 冷水豊 外. 1993. "中學生の老人觀." 《社會老年學》, 通卷 第38號, pp. 3~12.
- 中野いく子. 1991. "兒童の老人イメージ." 《社會老年學》, 通卷 第34號, pp. 23~36.
- 保坂久美子 外. 1988. "大學生の老人イメージ." 《社會老年學》, 通卷 第27號, pp. 22~33.
- 前田大作. 1983. "三世代の女性における老化・老人に對する態度." 《社會老年學》, 通卷 第18號, pp. 11~19.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Prentice-Hall.
- Benson, E. 1982.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 Survey of Recent Nursing Literature."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8(5), pp. 137~144.
- Birren, J. E. 1959. "Principles of Research on Aging." (Edited by Birren, J. E. *Handbook of Aging and Individu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3~42.
- Campbell, M. E. 1971. "Study of the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Geriatric Patient." *Nursing Research*. 20(2), pp. 147~151.
- Calnan, M. F. & Hanron, J. B. 1970. "Young Nurse-elderly Patient." *Nursing Outlook*. 18(12), pp. 44~46.
- Frenay, A. C. & Pierce, G. L. 1971. "The Climate of Care for a Geriatric Patien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71(9), pp. 1747~1750.
- Garfinkel, R. 1975. "The Reluctant Therapist." *Gerontologist*. 15, pp. 136~143.
- Gillis, S. M. 1973. "Attitudes of Nursing Personnel toward the Aged." *Nursing Research*. 22(6). pp. 517~520.
- Hillman, J. L., & Stricker, G. 1994. "A Linkage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ly Sexuality: Not Necessarily a Uniform Relationship." *The Gerontologist Society of America*, 34(2), pp. 256~260.
- Kilty, K. & Feld, A. 1976. "Attitudes toward Aging and toward the Needs of Elder

-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31, pp. 586~594.
- Kogan, N. 1961. "Attitudes toward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 pp. 44~54.
- Kogan, N. 1979. "Beliefs, Attitudes and Stereotypes about Old People: A New Look at Some Old Issues." *Research on Aging*, 1(1), pp. 11~36.
- Miller, R. B. & Dodder, R. A. 1980. "A Revision of Palmore's Facts on Aging Quiz." *Gerontologist*, 20, pp. 673~679.
- Osgood, C., Suci, G., & Tannenbaum, P. 1957. "The Measurement of Meaning." In *Urban Ill*, University of Illinois.
- Palmore, E. 1977. "Facts on Aging." *Gerontologist*, 17, pp. 315~320.
- Rankin, N. & Burggraff, V. 1983. "Aging in the '80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9(5), pp. 272~275.
- Spence, D. L. 1968. "Medical Student Attitudes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16(Sep), pp. 976~983.
- Tuckman, J. & Lorge, I. 1953. "Attitude toward Old Peop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pp. 249~260.

##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cial Worker's Knowledge about Facts on Aging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between Korea and Japan

Lee, Hye-Won

(Associate Professor, Sung Kong Ho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social worker's knowledge about facts on aging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 find out the variables that may influence their attitude. Four hundred and sixty two social workers working in nursing homes were given the questionnaire containing the Kyung San Facts on Aging Quiz to measure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aging and Yoon(1988)'s scale to find the direction of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1) The Korean social worker's level of knowledge about aging was 63.0%, which was lower than Japanese social worker's level(67.6%). (2) Using 5 points scale, mean of the Korean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2.2(44.8%), which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Japanese social worker's attitude 3.2(63.4%). (3)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ocial worker's level of knowledge about aging was the most significant predictor to explain the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The other variables that a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the social workers' attitude were country, personal experience with the elderly, and voluntary experience for the elderly. Especially th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the Korean social workers' attitude were their levels of knowledge about aging, age, and classification of social worker license.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t predictors to explain the Japanese social workers' attitude were their levels of knowledge about aging and periods of activit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education methods for making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more positive are also suggested.